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4.(수) 12:00
(지 면) 2026. 11. 5.(목) 조간

사회적 고립,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다... 제4회 '모두의 토론회' 참가자 모집

- 행안부·복지부, 11월 26일 킨텍스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의 해법' 모색
- 찬반 토론 넘어 전문가 발제와 분임·플로어 토론 어우러진 '아이디어 교류형' 운영
-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민 150명 공개 모집, 온라인 의견 수렴 병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1월 26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연결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4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함께 고민을 나눌 국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11.25.~11.27.)'와 연계해 개최되어, 더 많은 국민이 정부혁신 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찾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 단순 복지 넘어 새로운 관계망 구축 모색, '아이디어 교류형' 토론으로 진행

최근 현대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망 구축과 든든한 공동체 모델을 국민과 함께 찾고자 한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모두의 토론회'가 주로 생활 속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형태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 국민이 참여하는 분임 토론, 자유로운 플로어 토론이 어우러지는 '아이디어 교류형' 방식으로 운영되어 더욱 활발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사는 전문가의 발제로 문을 연 뒤, 분임 토론을 거쳐 국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만들고 공감 투표를 통해 대표 제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모아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의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모두의 광장'에서 국민 참가자 공개 모집 및 온라인 사전 의견 수렴

이번 제4회 모두의 토론회에 참가할 국민 150명은 10월 29일(목)부터 11월 13일(금)까지 사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가자는 사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기본 내용을 학습한 후,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립 문제를 해결할 실천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토론에 앞서 온라인을 통한 사전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모두의 광장'을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들은 현장 토론회에서도 공유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모두의 광장 << 소통24 << 모두의 토론회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향미 (044-205-2421)
		담당자	사무관	김혜지 (044-205-243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044-202-3120)
		담당자	사무관	박채린 (044-202-3124)